

『靈樞·血絡論』에 對한 研究

I. 緒論	396
II. 研究方法	396
III. 研究內容	398
第一章. 血絡의 刺鍼과 副作用	398
第二章. 血絡의 形態 및 刺法과 肉著	407
IV. 結語	411
參考文獻	412
ABSTRACT	413

《靈樞·血絡論》에 對한 研究

又石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醫史學專攻 李希炳 陸相元

I. 緒論

「血絡論」은 『甲乙』에는 卷一·第十四의 「奇邪血絡」에, 『太素』에는 卷第二十三·九鍼之三의 「量絡刺」에, 『類經』에는 二十卷·鍼刺類의 「血絡之刺其應有異」에 編述되어 있고, 王水이 『素問』을 註釋하고, 『靈樞』를 재편집하면서 第三十九篇에 수록하였다.

本篇은 刺絡瀉血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주로 論述하고,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리 및 血絡을 관찰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醫師로 하여금 그 원칙을 알아서 잘못 刺針하지 않도록 하였다. 全篇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絡脈을 刺鍼하여 血을 瀉하는 것, 즉 「刺絡瀉血」이므로 本篇을 「血絡論」이라 칭한다.¹⁾

本篇의 내용은 二章으로 나눌 수 있는데, 第一章은 奇邪에 대한 血絡의 刺鍼과 그 부작용에 대하여, 第二章은 血絡의 형태와 刺法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成輔社, 서울, 1980, pp. 310

本篇에 제시한 刺絡瀉血療法은 重要的 治療方法 가운데 하나로써 現在도 널리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本篇은 古文으로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서 이해하기에 난삽하여 註釋을 빌리지 않고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각의 註釋이 한결같지 않아서 어떤 것이 정론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註를 비교하여 정확한 의미를 찾고자 본 연구에 임하였다.

II. 研究方法

本篇의 내용을 章을 나누고 正文과 註釋의 原文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하여 내용을 고찰하고 直譯·意譯·結語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가. 正文의 底本은 聚珍倣宋版印本 『黃帝內經靈樞』로 하였다.

나. 全篇의 內容을 任應秋의 『黃帝內經章句索引』과 張介賓의 『類經』과 河北醫學院의 『靈樞經校釋』을 참조하여 그 內容을 二章으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 능한 現代化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 조사하였 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비교 참조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합당한 音과 訓을 선택하였 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一種 研究資料의 註釋 들을 같은 내용별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견의 대상이 되 는 註를 國譯하고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 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正文의 文法에 충실하도록 하였 다.

아. 意譯은 直譯의 내용과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내용, 較註에서 확정된 註釋의 내용을 따 라 함축된 의미까지도 敷衍하여 해석하였다.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인용문헌에 『00』, 문헌의 章節에 「00」등이며, 脚註는 '1), 2), 3), 4), ……」의 일련번호로 표기하였다.

表一. 校勘에 引用한 文獻

番 號	書 目	略 稱
1	元至元己卯胡氏吉林書堂 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 堂 刊本	熊本
3	明繡谷書林周曰校重刊本	周本
4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 衆書本	統本
5	明金陵尚義齋刊本	金陵本
6	黃以周 『內經鍼刺』光緒甲申校 刻本	黃校本
7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8	日本舊抄本	日抄本
9	日本田中清左衛門刻本	日刻本
10	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	甲乙
11	楊上善『黃帝內經太素』	太素
12	張介賓『類經』	類經
13	馬 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注本
14	張志聰『靈樞集註』	張注本
15	巢元方『諸病源候論』	病源

表二. 較註에 引用한 文獻

番號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 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	靈樞集註	張
5	黃元御	清	黃元御醫書十一種 (靈樞懸解)	黃
6	章楠	清	靈素節注類編 醫門棒喝三集	棒喝
7	丹波元簡	1803 年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丹波
8	陳璧琉, 鄭卓人	1963 年	靈樞經白話解	白話解
9	澁江全善	1981 年	黃帝內經古注選集 · 靈樞講義	講義
10	廓露春	1981 年	黃帝內經靈樞 校注語譯	語譯
11	河北 醫學院	1982 年	靈樞經校釋	校釋

III. 研究內容

第一章. 血絡의 刺鍼과 副作用

【原文】

黃帝曰 願聞其奇邪而不在經者(1)(1)하노이다

岐伯이 曰 血絡(2)이 是也니이다

黃帝曰 刺血絡而仆者는 何也며 血出而射者는 何也며 血少黑而濁者(2)는 何也며 血出清(3)而半爲汁者는 何也며 發(1)鍼而腫者는 何也며 血出若多(4)若少나 而面色蒼蒼(2)者(5)는 何也며 發鍼而面色不變이나 而煩惋(3)者는 何也며 多出血而

不動搖者는 何也오 願聞其故(3)하노이다

岐伯이 曰 脈氣盛而血虛者(6)는 刺之則脫氣하고 脫氣則仆(4)하며 血氣俱盛而陰氣多者는 其血滑하니 刺之則射(5)하며 陽氣畜(7)積하여 久留而不瀉者는 其血黑以濁 故로 不能射(6)하며 新飲而液(4)滲(5)于絡이나 而未合和于血也니 故로 血出而汁別焉(7)하며 其不新飲者는 身中有水하여 久則爲腫(8)하며 陰氣積于陽하면 其氣因(6)于絡(8) 故로 刺之에 血未出而氣先行 故로 腫(9)하며 陰陽之氣가 其(9)新相得而未和合에 因而瀉之(10)하면 則陰陽俱脫하여 表裏相離 故로 脫色而蒼蒼然(11)(10)하며 刺之에 血出多(12)하되 色(13)不變而煩惋(14)者는 刺絡而(15)虛經이니 虛經之屬于陰者는 陰脫(16)故로 煩惋(14)(11)하며 陰陽相得(7)而合爲痺(8)者는 此爲 內溢于經하고 外(17)注于絡이니 如是者(18)는 陰陽俱(19)有餘니 雖多出血而弗能虛也(12)니이다

【校勘】

(1) 其奇邪而不在經者: 『太素』에는 '奇邪而不在經者'로, 『甲乙』에는 '其奇邪而不在經者何也'로 되어 있다.

(2) 血少黑而濁者: 『甲乙』과 『太素』에는 모두 '血出黑而濁者'로 되어 있고, 『白話解』에서는 "血少黑而濁은 甲乙經에 少가 出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出血이 比較的 적다고 解釋되며 濁은 濃厚하다는 뜻이므로 黑而濁은 黑色이면서 濃厚한 血液이라고 解釋된다."고 했다.

(3) 血出清: 『太素』에는 '出'字가 없다.

(4) 血出若多: 『太素』에는 '若'字가 없다.

(5) 面色蒼蒼者: 『甲乙』과 『太素』에는 모두 '面色蒼蒼然者'로 되어 있다.

(6) 脈氣盛而血虛者: 『甲乙』에는 '脈氣甚而血

虛者'로, 『張馬合本』에는 '脈氣盛而虛者'로 되어 있다.

(7) 畜: 『甲乙』과 『太素』에는 '蓄'으로 되어 있다.

(8) 其氣因於絡: 『太素』에는 '則其氣因於絡'으로 되어 있다.

(9) 其: 『太素』에는 없다.

(10) 之: 『太素』에는 없다.

(11) 故脫色而蒼蒼然: 『太素』에는 '故脫色面蒼然'으로 되어 있다.

(12) 血出多: 『太素』에는 '血多'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없다.

(13) 色: 『甲乙』에는 없다.

(14) 煩惋: 『太素』와 『甲乙』에는 '煩悶'으로 되어 있다.

(15) 刺絡而: 『太素』에는 '刺絡中'으로 되어 있다.

(16) 陰脫: 『甲乙』에는 '陰氣脫'로 되어 있다.

(17) 外: 『甲乙』에는 '而外'로 되어 있다.

(18) 者: 『甲乙』에는 없다.

(19) 俱: 『甲乙』에는 '皆'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發: 舉也, 撥也 들 발, 활당길 발
- (2) 蒼: 靑也, 푸를 창
- (3) 惋: 惑也, 미혹할 만 『中醫難字字典』에 '悶'·'惋'字와 같다고 하였다.
- (4) 液: 汁也, 진액 액
- (5) 滲: 淚也, 설 삼
- (6) 因: 重合也, 쌓일 인
- (7) 得: 遇也, 만날 득 『太素』에 "得은 遇也라"고 하였다.
- (8) 痺: 塞也, 막힐 비

【較註】

(1) 其奇邪而不在經者: 楊·馬·景岳·張·白話解는 "奇邪는 經에 있지 않고 絡에 있어서 이리저리 돌아 다니기 때문에 보통 邪氣와는 다른 病邪를 形容한 것이다. 여기의 奇病은 絡脈이 閉塞되어 통하지 않고 外邪가 壅滯되어서 經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 이상한 病變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¹⁾고 하였다.

(2) 血絡: 黃은 "血絡은 邪氣가 絡脈에 들어와 氣가 막히고 血이 막힌 것이다."²⁾고 하였고, 白話解는 "血絡이란 皮膚表面의 絡脈과 小脈을 광범위하게 지칭하여 말한 것이다."³⁾고 하였다.

(3) 黃帝曰 刺血絡而仆者 何也 血出而射者 何

1) 楊: 邪在血絡奇絡之中 故曰 曰奇邪也라 ○ 馬: 奇邪는 不正之邪也라 奇邪在各篇이 不一이니 本經口問篇에 亦有奇邪二字로대 但口問에는 言奇邪是於空竅요 而此는 則 奇邪走于血絡也라 奇邪不在于經 故曰 在于血絡也라 ○ 景岳: 奇邪는 卽釋刺論所謂奇病也라 在絡不在經하야 行無常處 故曰 曰奇邪라 ○ 張: 玉版論에 曰 人之所受氣者는 穀也요 穀之所注者는 胃也니 胃者는 水穀血氣之海也요 海之所行雲氣者는 天下也요 胃之所出血氣者는 經隧也니 經隧者는 五藏六府之大絡也라하니라 夫穀入于胃하면 乃傳之肺하야 流溢于中하고 布散于外니 精專者는 行于經隧하니 是水穀所生之血氣요 榮은 行于脈中者也라 水穀之精氣는 從胃之大絡하야 注于藏府之經隧하고 適于孫絡하고 出于皮膚하야 以溫肌肉하니 此는 水穀所生之氣血이 散于脈外者也라 夫大絡與經脈이 繆處라 故曰 奇邪而不在經者는 血絡是也라 上章은 論五藏六府之血氣와 少陰腎藏之精氣가 從中脈하야 而出于皮膚요 此章은 謂府所生之氣血이 從藏府之大絡하야 而出于皮膚라 楊元如 曰 按素問繆刺篇에 云 邪客于皮毛하야 入舍於孫絡하야 留而不去하야 閉塞不通하면 不得入于經하고 流溢于大絡하야 而生奇病이라하니 故曰 曰 奇邪者는 血絡是也라 ○ 白話解: 奇邪는 是形容在絡不在經하야 行無常處하야 異於尋常의 一種病邪라 這裏의 奇病은 就是因絡脈閉塞不通하야 外邪壅滯하고 不能深入經脈하야 致發生異常의 病變이라

2) 黃: 血絡은 邪中於絡하야 氣阻而血壅者也라

3) 白話解: 血絡은 是泛指皮膚表面의 絡脈和 小脈而言이라

也 血少黑而濁者 何也 血出清而半爲汁者 何也 發鍼而腫者 何也 血出若多若少而面色蒼蒼者 何也 發鍼而面色不變而煩惋者 何也 多出血而不動搖者 何也 願聞其故: 楊는 “刺絡에 이런 여덟가지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해답을 찾는 것이다.”⁴⁾라고 하였고, 張은 “血絡이라는 것은 신체 바깥의 絡脈과 孫絡이므로 皮膚사이에 드러나는 것인데, 血氣가 머물러 쌓이면 그 안팎으로 출입하는 기율이 상실되는 것이다.”⁵⁾고 하였다.

[4] 脈氣盛而血虛者 刺之則脫氣 脫氣則仆: 楊·馬·景岳·黃은 “脈 가운데 氣는 많고 血이 적으며 血이 氣에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刺針을 하면 氣血이 모두 나오나 그 血이 먼저 虛해지고 이어서 脫氣되어 氣血이 모두 달아나므로 쓰러진다.”⁶⁾고 하였고, 張은 “이것은 經脈의 血氣와 皮膚의 氣血은 모두 胃府의 水穀之精에서 나와 각각의 길로 나누어져 走行하는 것이니 의당 和平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經脈의 脈氣가 盛하고 皮膚의 血氣가 虛한 사람을 刺鍼하면 脫氣하고 脫氣하면 넘어지는 것이다.”⁷⁾고 하였다.

[5] 血氣俱盛而陰氣多者 其血清 刺之則射: 楊은 “陽氣가 많으면 그 血液은 매끄러우니 이런 경우 刺鍼하면 血이 射出된다. 여기에서 ‘陰氣多者’라고 한 것은 陰이 많으면 걸끄럽기 때문에

4) 楊: 刺絡有此八種之異니 請解所以也라

5) 張: 血絡者는 外之絡脈孫絡이니 見于皮膚之間이어늘 血氣有所留積하면 則失其外內出入之機라

6) 楊: 脈中이 氣多血少하며 血持於氣하니 刺之면 氣血俱出하야 其血先虛而復脫氣하야 氣血俱奪 故로仆也라 ○ 馬: 正以脈有氣盛而血虛者는 必瀉其氣하고 以補其血이라 故로 刺之則脫氣하고 脫氣則仆也라 ○ 景岳: 氣雖盛而血則虛者는 若寫其氣하면 則陰陽俱脫 故로爲仆倒라 ○ 黃: 脈之氣盛而血虛者는 刺之則脫其氣하고 脫氣則身仆라

7) 張: 此는 言經脈之血氣와 皮膚之氣血은 皆出于胃府水穀之精 而分走其道니 所當和平者也이늘 若經脈之脈氣盛而皮膚之血氣虛者를 刺之則脫氣하고 脫氣則仆矣라

‘陰’은 錯簡된 글자이다.”⁸⁾라고 하여 ‘陰’字가 錯簡이라 하였으나, 馬·景岳·黃은 “血이 나오되 射出되는 것은 陰 가운데 氣가 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血氣俱盛이라 하였다.”⁹⁾고 하였고, 張은 “이는 經脈의 안과 皮膚의 사이에 모두 이 血氣가 있으나 陰陽의 區分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經脈은 陰이고 皮膚는 陽이니 모두 盛하다는 것은 經脈內外의 血氣가 모두 盛한 것이다. 가령 脈 가운데 陰氣가 많으면 그 血이 매끄럽기 때문에 刺鍼하면 血이 射出된다.”¹⁰⁾고 하였다.

[6] 陽氣畜積 久而不瀉者 其血黑以濁 故不能射: 楊은 “熱氣가 오래 머물러 뭉치고 혼증하기 때문에 피가 검고濁하다.”¹¹⁾고 하였고,

馬·景岳·張·黃은 “陽邪가 오래 머물러 나가지 않으면 陽氣가 날로 盛하여 陰血은 날로 마르기 때문에 血이 검고 탁해서 나오는 것도 적고 射出될 것도 없다.”¹²⁾고 하였다.

[7] 新飲而液滲于絡 而未合于血也 故血出而汁別焉: 楊·馬·景岳·黃은 “물을 방금 마셨을 때에 水液이 血絡으로 스며드나, 아직 血과

8) 楊: 陽氣多者는 其血清하니 刺之하면 血射라 此에 爲 陰氣多者나 陰多爲澀 故로 陰字는 錯也라

9) 馬: 正以血氣俱盛하야 而內爲陰氣多者는 其血必滑 故로 刺之則射也라 ○ 景岳: 血出而能射者는 陰中之氣使之也라 故로 曰 血氣俱盛이라 ○ 黃: 血氣俱盛而陰氣多者는 陰氣逼하야 氣血清利하니 刺之則射하며 見擊而奔也라

10) 張: 此는 言經脈之內와 皮膚之間에 皆有此血氣而有 陰陽之分焉이라 經脈爲陰이오 皮膚爲陽이니 俱盛者는 經脈外內之血氣가 俱盛也라 如脈中之陰氣多者는 其血清 故로 刺之則射라

11) 楊: 熱氣久留癰蒸 故로 血黑而濁也라

12) 馬: 正以陽氣畜積하야 久留不瀉하면 其血이 黑而濁 故로 不能射也라 ○ 景岳: 陽氣久留不瀉 則陽邪日盛하야 陰血日枯 故로 血黑而濁하야 所出不多하고 不能射也라 ○ 張: 如皮膚之陽氣畜積하야 久留而不瀉者는 其血黑以濁 故로 不能射也라 朱濟公이 曰 陽氣留積하면 其血黑濁은 血隨氣行者也일새라하니라 ○ 黃: 陽氣畜積하야 經血久留而不瀉者는 壅滯腐敗하야 其血黑而濁하고 膠而莫流 故로 不能射라

는 和合하지 않았기 때문에 血이 나오되 半은 汗으로 나온다.”¹³⁾고 하였고, 張은 “이는 絡脈의 血은 水穀의 津液으로부터 化한 것이니, 津液이 皮膚와 肌膜에 들어가면 孫絡으로 스며들어 血과 和合하여 붉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방금 물을 마시면 水液이 絡脈으로 스며드나 아직 血과 和合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津液이 아직 붉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¹⁴⁾고 하였다.

[8] 其不新飲者 身中有水 久則爲腫: 楊·馬·黃은 “방금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으로써 몸 가운데 積滯된 水氣가 이것이 오래되면 經絡으로 흘러 넘쳐서 腫脹이 되는 것이다.”¹⁵⁾고 하였고, 張은 “방금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으로써 몸 가운데 몸 가운데 水氣가 오래되면 붓는 것은 대개 血은 水穀의 津液이 變化된 것이니 만약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汗으로 나오는 것은 곧 몸 가운데 있던 水氣임을 말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奇邪가 經에 있지 않다는 것은 皮膚의 氣血은 別絡을 나와 孫絡으로 나오는 것이니 皮膚와 經脈이 엇갈리는 것이고, 이 筋은 津液은 皮膚에 흘러가고 絡脈에 스며들어 經脈의 血과 和合하니 이는 皮膚孫絡이 또한 經脈과 서로 통해서 皮膚絡脈의 氣血이 이로부터 오게 되니 또한 다른 길이 있음을 논한 것이다. 무릇 이 篇은 鍼을

빌려서 陰陽氣血이 생기고 시작하고 出入하는 것을 밝힌 것이니 배우는 자는 마땅히 鍼刺하는 이외에도 그 깊은 뜻도 본받아야 한다.”¹⁶⁾고 하였다.

[9] 陰氣積于陽 其氣因于絡 故 刺之血未出而氣先行 故腫: 楊은 “陰氣가 오래 적체된 陽絡 가운데에 刺鍼하면 陰血은 갈갈하여 運行하지 못하고 陽氣만 먼저 運行하기 때문에 붓게 된다.”¹⁷⁾고 하였고, 馬는 “陰氣가 陽 부분에 積滯되어 그 氣가 血絡 가운데 모여 있으므로 刺鍼할 때에 血은 오히려 나오지 않으나 氣는 곧 먼저 走行하기 때문에 針을 놓으면 붓게 된다.”¹⁸⁾고 하였고, 景岳·黃은 “水氣가 肌表에 있다가 絡脈에 쌓여 있는 것은 陰氣가 陽분에 적체되는 것이다. 刺鍼할 때에 血은 나오지 않고 氣만 먼저 走行하는 것은 陰이 陽에서 막혀 쉽게 흘러지지 않는 것이니 이렇기 때문에 붓게 된다.”¹⁹⁾고 하였고, 張은 “이는 陽分の 氣血이 大絡과 孫絡에 쌓여서 나오는 것을 말한 것이다. 臟腑와 經脈은 陰이고 皮膚와 肌膜은 陽이니 臟腑의 陰氣가 皮膚의 陽분에 쌓이면 그 氣가 大絡과 孫絡에

16) 張: 其不新飲者 身中有水 久則爲腫은 蓋言血은 乃水穀之津液의 所化니 若不新飲而出爲汗者는 乃身中之水也라 按奇邪而不在經者는 謂皮膚之氣血은 從別絡而出于孫絡이니 皮膚與經脈이 膠處요 此節은 論津液은 注于皮膚하고 滲于絡脈하야 與經脈之血로 和合이니 是는 皮膚孫絡이 又與經脈으로 相通하야 而皮膚絡脈之氣血이 所從來니 又有一道라 蓋此篇은 假針하야 以明陰陽氣血之生始出入이니 學者는 當于針刺之外에 細體認其義焉이니라

17) 楊: 陰氣久積陽絡之中에 刺之면 陰血滯而未行하고 陽氣先行 故로 腫이라

18) 馬: 陰氣積于陽分하야 其氣聚于血絡之中 故로 刺之時에 血尙未出 而氣乃先行하니 所以發針而腫也라

19) 景岳: 水在肌表而因於絡은 陰氣積於陽分也라 刺之에 血未出而氣先行은 陰滯於陽하야 而不易散也니 所以爲腫이라 ○黃: 水中陰氣가 積於陽分하면 其氣因於絡脈하야 已將作腫이어늘 刺之血未出而陰氣先行하야 充塞絡中 故로 發腫滿하고 不俟日久而四益也라

13) 楊: 新水未變爲血하니 所以別行이라 ○馬: 正以新飲之際에 而液滲血絡이나 未得合于血 故로 血出而半爲汗也라 ○景岳: 新飲이 入胃하야 未及變化而滲於絡 故로 血汗相半이라 ○黃: 新飲水而液滲於絡이나 未經和合於血 故로 血出而汗別焉이라

14) 張: 此는 言絡脈之血은 由水穀之津液所化요 津液이 注于皮膚肌膜하고 滲于孫絡하야 與血和合而化赤者也라 故로 新飲而液滲于絡하고 未和合于血은 是津液이 未變而赤이라 故로 刺之면 血出清而半爲汗也라

15) 楊: 舊水留而不寫하야 以爲水腫이라 ○馬: 正以不新飲者는 身中有水니 久則爲腫이라 ○黃: 其不新飲者는 身中宿有積水하야 久則流溢經絡하야 而爲腫脹이라

쌓여서 나오고, 血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氣가 먼저 走行한다는 것은 臟腑의 氣가 먼저 走行하고 血은 氣를 따라서 나오는 것이다.”²⁰⁾고 하였고, 丹波는 “이는 윗 문장의 發鍼而腫者에 대한 질문에 對答한 것이다. 腫은 침자리가 부어어른 것을 말하니 윗절(其不新飲者身中有水久則爲腫)과는 뜻이 다르다.”²¹⁾고 하였다.

[10] 陰陽之氣 其新相得而未和合 因而瀉之 則陰陽俱脫 表裏相離 故脫色而蒼蒼然: 楊·黃은 “得은 만난다는 뜻이다. 陰陽이 和合하게 되면 表와 裏가 서로를 붙잡아주나 和合하지 않았을 때에 刺鍼한 것이다. 그러므로 陰과 陽이 모두 脫盡되어 떨어져 나가지 때문에 안색도 탈진되어 창백하게 된다.”²²⁾고 하였고, 馬·景岳은 “이제 막 서로 만났으나 和合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氣血이 비로소 調和되고 營衛가 겨우 安定된 것을 말한 것이니, 이때에 이르러서는 根本이 아직은 堅固하지 않는데 妄靈되어 瀉法을 施術하면 陰陽과 表裏가 모두 脫離되어 나가므로 쇠잔하고 危殆한 色이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²³⁾

20) 張: 此는 言陽分之氣血이 因于大絡孫絡而出也라 藏府經脈은 爲陰이오 皮膚肌腠는 爲陽이니 藏府之陰氣가 積于皮膚之陽分者는 其氣가 因于大絡孫絡而出이오 血未出而氣先行者는 謂藏府之氣先行而血隨氣出者也라 ○ 白話解: 五臟의 陰氣가 積聚於皮膚間의 陽分하면 其氣從絡脈而出하니 所以在刺絡還未出血時에 氣已先血而行하고 陰滯於陽야 不易散하니 因此就會在被刺의 局部發腫이라

21) 丹波: 此는 答上文發針而腫者之問也라 腫은 乃針痕腫起之謂니 與上節로 異義라

22) 楊: 得은 遇也라 陰陽成和하면 則表裏相持어늘 未合에 刺之라 故로 俱脫離하니 所以脫色하야 面色靑이라 ○ 黃: 陰陽之氣가 其新相得而未和合하니 彼此環抱不堅이어늘 因而瀉之하면 則陰陽俱脫하야 無以榮華皮膚 故로 脫色而面蒼蒼然이라

23) 馬: 正以營衛二氣가 暫時相得이나 尙未和合에 因而瀉之하면 則陰陽俱脫하야 表裏相離 故로 其色脫而蒼蒼然也라 ○ 景岳: 新相得而未和合者는 言血氣初調悶하고 營衛甫定也니 當此之時엔 根本未固 而妄施以瀉 則陰陽表裏가 俱致脫離하야 而衰危之色이 故見於面也라 (*甫:始也. 겨

고 하였고, 張은 “皮膚는 表요 經脈은 裏니, 皮膚表의 陽이 脈內의 陰氣를 얻어 和合하고 經脈의 陰이 皮膚表의 陽氣를 얻어 和合하면 陰陽表裏가 서로 和合된 것인데, 가령 陰陽의 氣가 새로이 서로 만나서 아직 和合하지 못한 때에 이를 瀉하면 陰陽이 모두 脫盡되어 表裏가 서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안색도 달아나 창백하게 된다. 蒼蒼은 靑色이다.”²⁴⁾고 하였다.

[11] 刺之血出多 色不變而煩惋者 刺絡而虛經 虛經之屬于陰者 陰脫 故煩惋: 楊·馬·景岳·黃 등은 “出血시키는 것은 그 絡脈을 刺鍼하는 것이다. 만약 너무 많이 出血하면 반드시 虛해진 것이 經에 미치고 經 가운데 陰에 屬하는 것은 臟을 주재하니 臟이 虛하면 陰이 脫盡하기 때문에 煩惋이 생긴다.”²⁵⁾고 하였고, 張은 “이것은 陰陽이 모두 탈진되어서 色이 變하는 것은 皮膚絡脈의 血이 빠져 나간 것을 말한 것이다.

우 보) ○ 白話解: 陰陽內外的營衛氣血가 在剛剛相和 而還未完全調和之際에 而妄用了瀉法하면 就會使陰陽氣血都耗散하야 營衛表裏相互離決하니 所以會有氣血損耗하야 而面色蒼白的現象이라

24) 張: 皮膚爲表요 經脈爲裏이니 膚表之陽이 得脈內之陰氣하야 以和之하고 經脈之陰이 得膚表之陽氣하야 以和之하면 陰陽表裏之相合也 如陰陽之氣가 其新相得而未和合에 因而瀉之하면 則陰陽俱脫하야 表裏相離 故로 脫色而蒼蒼然이라 蒼蒼은 靑色也라

25) 楊: 刺絡血者는 邪盡하면 血變이어늘 血多나 其色不變하고 其心悶者는 以其刺屬藏虛經하야 陰氣有脫하야 致使心悶也라 ○ 馬: 正以刺絡而經虛하고 其經之屬於陰者는 陰脫 故로 煩惋也라 ○ 景岳: 取血者는 刺其絡也라 若出血過多하면 必虛及於經하고 經之屬陰者는 主藏하니 藏虛則陰脫 故로 爲煩惋이라 ○ 黃: 刺之血出多하고 色不變而煩惋者는 刺其絡而虛其經이라 經爲陰이니 虛其經之屬於陰者는 陰脫 故로 生煩惋이라 ○ 白話解: 刺絡出血過多나 面色不變而感覺心胸煩悶은 這是因刺絡而使經虛하고 虛의 經脈이 因在內連屬於五臟之陰하야 相互影響이니 由經虛而臟虛하고 臟虛則陰脫하니 所以有心胸煩悶의 現象이라 ○ 語譯: 刺絡出血過多나 面色不變而心胸感覺煩悶은 這是因爲刺絡而使經脈虛了니 所虛의 經脈이 連屬於五臟之陰하고 陰虛하면 因而出現了煩悶現象이라

가령 出血이 많았는데도 色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絡脈을 刺鍼하여 그 經脈이 虛한 것이니 經이 虛한 무리들이 陰이 탈진한 것이다. 心은 脈을 主管하고 心包絡은 血을 主管하니 陰臟의 血이 脫盡되었기 때문에 煩悶이 생긴다. 대개 外部의 血氣는 臟腑의 陰에서 시작하여 經으로, 經에서 脈으로, 脈에서 絡으로 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²⁶⁾고 하였다.

(12) 陰陽相得而合爲痺者 此爲內溢于經 外注于絡 如是者 陰陽俱有餘 雖多出血而弗能虛也: 楊·馬·景岳은 “陰陽이 相得하였다는 것은 表裏의 邪氣가 서로 合한 것을 말하니, 經絡의 病이 모두 有餘하면 비록 出血이 많더라도 모두 邪氣일 뿐이다. 그러므로 虛해지지 않는다.”²⁷⁾고 하였고, 張은 “무릇 內는 陰, 外는 陽이며 經絡은 陰, 皮膚는 陽이다. 이것은 血氣의 內外出入이 相得하여 和合하는 것을 總結한 것이다.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皮膚로부터 孫脈과 絡脈으로 스며들고 안으로 經脈으로 넘치는 것이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은 臟腑의 陰으로부터 經脈으로 나오고 經脈으로부터 絡脈과 皮膚로 흐르는 것이니 이것이 外內의 相得인데, 만약 陰陽이 모두 有餘하면 相合하여 外內 사이에서 막히므로 비록 出血이 많더라도 虛해지지 않는 것이다.”²⁸⁾고 하였고, 黃·白

話·語譯은 “陰陽表裏營衛의 氣는 본래 協調하여야 하나, 外邪가 混合되어 內部에 있게 되면 막혀 통하지 않는 病症이 發生하고 이때는 邪氣가 內部에 壅滯되니 內部로는 經脈으로 차서 넘치고 外部로는 絡脈에 흐른다. 이와 같은 상황은 陰陽表裏의 사이에 모두 邪氣가 盛한 有餘한 증에 속하니, 비록 出血이 비교적 많더라도 단지 壅滯된 外邪만 排出되기 때문에 經絡이 이로 인하여 虛해지지 않는다.”²⁹⁾고 하였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血少黑而濁者’에 대하여 앞뒤의 문장이 ‘血出而射者’, ‘血出清而半爲汁者’라고 되어 있고 『太素』와 『甲乙經』에는 ‘血出黑而濁者’로 되어 있으므로 (??누가 고쳐야한다고 하였는지 찾아서 밝혀줄것)洪은 응당 ‘血少’를 ‘血出’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으나, 岐伯이 邪氣가 축적되어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서 그 血이 검고 濁하기 때문에 뽑지 않는다(陽氣畜積 久留而不瀉者 其血黑而濁 故不能射)고 대답한 것으로 볼때, 濁한 血은

陽이니 此는 總結血氣之外內出入이 相得而和合者也라 自外而內者는 從皮膚하여 滲于孫脈絡脈하여 而內溢于經이오 自內而外者는 從藏府之陰하여 而出于經하고 從經脈而外注于絡脈皮膚이니 外內之相得也이어늘 如陰陽俱有餘하면 相合而痺閉于外內之間하니 雖多血이나 而弗能虛也라

29) 黃: 陰陽相合而爲痺者는 隨道埋阻니 此는 爲氣血內溢于經하고 外注于絡이라 如是者는 陰陽俱有餘니 雖多出血이라도 而不能虛也라 故로 不動搖라 ○ 白話解: 陰陽表裏營衛之氣는 素來協調나 因外邪混合在內하여 而發生痺閉不通의 病症하면 此時엔 邪氣壅滯于內하니 內則充溢于經脈하고 外則傳注于絡脈이라 像如此의 情況은 在陰陽表裏之間에 都屬於邪盛有餘하니 出血雖較多라도 但因排出是壅滯의 外邪하니 不會使經絡因此而虛라 ○ 語譯: 陰邪陽邪連在一起하여 而成爲痺證은 邪氣滯留體內니 從內說하면 充滿了 經脈하고 從外說하면 流注于絡脈하여 象這樣이라 在陰陽方面에 都屬於邪盛有餘하면 在刺絡時에 雖然是多出點血이라도 經脈也不會虛의 이라

26) 張: 此는 言陰陽俱脫而色變者는 皮膚絡脈之血脫也라 如血出多而色不變者는 刺其絡而虛其經也니 經虛之屬은 則陰脫矣오 心主脈하고 而包絡主血하니 陰藏之血脫 故로 煩悶也라 蓋言在外之血氣는 由藏府之陰하여 而出于經하고 經而脈하고 脈而絡也라

27) 楊: 陰陽相共受邪爲痺는 是爲陰陽俱盛 故로 出血이라도 不虛也라 ○ 馬: 正以營衛相得하여 合成痺病者는 此其邪氣가 內溢于經하고 外注于絡이니 則陽陰俱以邪氣而有餘하면 雖血多出而弗能虛하니 所以不至動搖也라 ○ 景岳: 陰陽相得은 言表裏之邪相合也니 經絡之病이 俱有餘하면 雖多出血이라도 皆邪氣耳라 故로 弗能虛라

28) 張: 夫內爲陰이오 外爲陽이며 經絡爲陰이오 皮膚爲

영겨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혈량이 적다고 한 原文이 옳다고 思料된다.

‘面色蒼蒼者’에 대하여 『太素』와 『甲乙經』에 ‘面色蒼蒼然者’로 되어 있고, 『素問·刺癰論』에 ‘肝癰者 令人色蒼蒼然 太息…’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內經』에서 擬態語에 주로 ‘然’字를 붙여서 사용하였지만, 色을 표현한 形容詞에도 ‘然’字를 사용하였으며, 뒤의 대담에 ‘脫色而蒼蒼然’이라 하여 ‘然’字를 붙여서 표현하였으므로 ‘面色蒼蒼然者’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본편의 名稱인 血絡은 絡脈의 一種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絡脈을 분류하면 十二經脈에서 分出하여 斜行하는 十二絡脈과 任脈, 督脈의 絡脈, 脾의 大絡과 胃의 大絡을 포함하는 十六絡脈과 비교적 큰 絡脈에서 分出的 細小分枝를 말하는 孫絡, 皮膚의 表面에 浮現하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浮絡, 浮絡中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血絡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生理的인 것을 말한다.³⁰⁾

본편의 血絡에 대하여 黃은 “血絡은 邪氣가 絡에 들어와 氣가 막히고 血이 막힌 것이다.”고 하여 病理的인 개념으로, 白話解는 “血絡이란 皮膚表面의 絡脈과 小脈을 광범위하게 指稱하여 말한 것이다.”고 하여 解剖學的인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本篇은 刺絡療法을 다룬 篇이며 本文 내용도 또한 血絡은 ‘奇邪가 經脈에 있지 않은 것’(奇邪而不在經者)이라 하여 病理的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黃’의 의견이 妥當하며, 原文과 醫家들의 註釋을 考慮하면 血絡이란 皮膚表面에 邪氣가 들어가 막혀서 통하지 않고 머물러 제거

되지 않아서 아직 經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지칭한다고 思料된다.

‘脈氣盛而血虛者 刺之則脫氣 脫氣則仆’는 刺針後에 넘어지는 결과에 대해 대담한 것인데, ‘楊’ 등은 脈가운데 氣血의 盛과 衰에 따른 刺鍼의 結果로 說明하였고, 張은 朱濟公의 말을 빌어 ‘陰在內 陽之守’하며 ‘血爲氣之守’인데 經脈의 氣는 盛하고 皮膚의 血은 虛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說明했다.

‘血氣俱盛而陰氣多者 其血滑 刺之則射’에서 ‘楊’은 ‘陰氣多者’는 ‘陽氣多者’의 錯簡이라고 하였으나, ‘馬’ 등은 ‘血이 나오되 射出하는 것은 陰가운데 氣가 시킨 것이다.’고 하였고, 張은 ‘만약 脈가운데 陰氣가 많은 사람은 血이 매끄러워서 刺鍼하면 射出한다.’고 說明했다. 陰氣가 많다는 것은 陰陽을 기능과 기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 기질적인 부분, 즉 형태적인 것이 많은 것이므로 울체되고 팽팽하며, 압력이 높은 상태에 이르고 여기에 刺針하면 내부의 울체되고 매끄러운 血이 射出되는 것이므로 楊의 착간으로 본 見解는 남득키 어려우며 原文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思料된다.

‘陽氣畜積 久留而不瀉者 其血黑以濁 故 不能射’에서 ‘馬’ 등은 ‘陽邪는 날로 盛해지고 陰血은 날로 枯渴되므로 血이 黑하고 濁해져 噴出할 血이 많지 않기 때문에 噴射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하여 瘀血이 생기는 것을 陽邪와 陰血의 盛衰로 판단해 說明했다. 체내의 혈액 가운데 적혈구, 백혈구, 혈장내의 영양소와 섬유질 모두가 일정한 주기로 교체되어 신진대사를 영위하는데, 陽邪 즉 熱性的인 질환이나 虛熱 즉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소모성 질환이 있을 때 체내의 혈액은 그 신진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저체된 瘀血 상태를 일으키므로 刺絡할 때에도 환자와 病邪

30) 林鐘國: 鍼灸治療學, 集文堂, 서울, 1986, pp.202

의 虛實에 따라 그 血의 色이 검고 濁하여 잘 射出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新飲而液滲于絡 而未合和于血也 故 血出而汁別焉’에서 出血할 때 吮은 汁이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 ‘楊’ 등은 ‘물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水氣가 아직 血과 和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혈액의 농도가 떨어진 것을 말한다. 몸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예컨대 총상을 입어 출혈이 많은 환자가 물을 마시게 되면 그 혈액의 농도가 묽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액내의 止血因子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혈액을 보충하던지, 몸의 전해질과 같은 농도의 수액을 공급하여야 하는 이치를 말한 것이라고 思料된다.

‘其不新飲者 身中有水 久則爲腫’에서 ‘楊’ 등은 ‘새로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몸속에 머물러 있던 積水가 오래되면 經絡으로 흘러 넘쳐 腫脹이 되는 것이다.’고 하였고, 張은 ‘새로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인데 汁이 나오는 것은 몸가운데 있던 水氣이다.’고 하여 水腫을 說明했다. 본래 체내의 邪水로 인해 浮腫이 될 환자를 刺絡하게 되면 氣가 손상되고 氣의 순환장애에 의해 인체의 水液代謝에 관여되는 肺, 脾, 腎, 三焦 등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쳐 水腫이 발생하게 된다. 現代的으로 말하는 水腫은 ‘間質에 體液이 過量으로 고이는 것’으로 교질삼투압의 감소, 모세혈관의 정수압증가, 모세혈관의 투과성 항진, 임파폐색, 나트륨과 체액과잉 등 여러 原因이 있는데 몸속에 머물러 있던 積水가 오래되어 經絡으로 흘러 넘쳐 腫脹이 된다고 보는 見解와 一致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陰氣積于陽 其氣因于絡 故 刺之血未出而氣先行 故腫’에서 楊·馬는 陰氣가 血絡에 積聚한

것으로 보았고, 景岳·黃은 水氣가 肌表絡脈에 積聚한 것으로 보았으며, 張은 藏府의 陰氣가 皮膚의 陽分에 쌓인 것이라고 하여 설명하면서 ‘腫’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해 敷衍하지 않은 반면에 丹波는 “이 答은 上文의 發鍼而腫者에 대한 질문에 對答한 것이다. 腫은 鍼痕이 腫起된 것을 말하므로 上節(其不新飲者身中有水久則爲腫)과는 다른 뜻이다.”고 하여 ‘腫’이 윗 문장의 水腫과는 달리 針痕을 말한다고 하였다.

‘其氣因于絡’의 ‘因’字는 白話解에서 “其氣因于絡의 因은 ‘由’字로 解釋하여 陰氣가 陽分의 絡脈을 經유해서 나온다고 보았으나 語譯에는 ‘因’을 『呂氏春秋』의 高注를 引用하여 ‘隱匿’의 意味로 解釋하고 있다.

‘積滯되었던 陽分의 氣가 絡을 經유해서 나온다.’로 解釋하면 ‘陽分의 氣가 浮腫을 만든다.’는 뜻이 되는데 ‘氣는 먼저 行하여 나가거나 옮기지 만 陰血이나 陰氣는 凝滯되어 흠어지지 않으므로 浮腫이 생기는 것’이므로 白話解의 解釋은 매끄럽지 못하다. ‘陰氣가 陽分에 쌓인다는 意味’가 ‘陰氣가 陽分의 絡脈을 따라서 나온다.’는 뜻보다 옳다고 思料되므로 語譯의 註釋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思料된다.

‘陰陽之氣 其新相得而未和合 因而瀉之 則陰陽俱脫 表裏相離故 脫色而蒼蒼然’는 人體內 精氣가 不安定한 狀態, 즉 陰陽之氣가 서로 和合하지 못한 狀態에서 瀉法을 應用했을 때의 狀況을 說明한 것으로 이를 楊·黃은 “陰陽이 미처 和合하지 못했을 때에 刺鍼하였기 때문에 陰陽이 모두 脫盡되어 서로 분리되므로 안색이 창백해진다.”고 하였고, 馬·景岳은 “根本이 堅固하지 않은데 妄靈되어 瀉法을 施術하면 陰陽과 表裏가 모두 脫離하여 쇠잔하고 위태한 色이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고, 張은 “만약 陰陽의

氣가 새로이 서로 만나서 미처 和合하지 못하였을 때에 이를 瀉하면 陰陽이 모두 脫盡되어 表와 裏가 서로 分離되므로 色이 달아나 창백해진다. 蒼蒼은 青色이다. 『平脈篇』에 '榮氣가 不足하면 안색이 靑하다'고 하였으니 陰陽이 모두 脫한 者는 經脈內外의 榮氣가 脫盡된 것이다."고 하였다. 이는 形容已脫, 大脫血之後, 大汗之後, 大泄之後, 新産大血之後에 瀉法을 禁한 '五奪不可瀉'의 禁忌와 같은 것으로 思料된다.

'刺之 血出多 色不變而煩惋者 刺絡而虛經 虛經之屬于陰者 陰脫 故 煩惋'에서 '楊' 등은 '經을 虛하게 하였는데 經가운데 五臟에 속하는 陰經이 虛해져 결국은 五臟의 陰虛를 초래하여 煩悶함이 생긴다.'고 하였고, 張은 '經脈이 虛해지는데 經脈의 脈을 主管하는 장기가 心臟이고, 經脈을 通過하는 血을 主管하는 장기가 心包이라서 心과 心包가 虛하게 되어 心煩이 發生한다.'고 보았다. 煩惋이 發生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心과 心包에 관련되지만 原文의 '刺絡而虛經 虛經之屬于陰者'라는 것이 心이나 心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陰經이나 陰藏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妥當하다고 생각되므로 '楊' 등의 見解가 解釋上 매끄럽다. 出血이 많아서 생기는 煩惋은 病理的으로 '虛煩'에 속한다. 임상상 虛煩은 熱性病의 후기에 津液이 손상되거나, 傷寒外感過程중에 汗, 吐, 下의 誤治로 陰虛火旺하거나, 産後失血過多 등으로도 발생하는데 胸中煩熱, 睡眠不寧 등의 증후를 동반한다. 刺絡으로 인해 出血이 과다하여 煩惋이 생기는 사람 또한 일종의 誤治로 봐야한다고 생각된다.

'陰陽相得而合爲痺者 此爲內溢于經 外注于絡 如是者 陰陽俱有餘 雖多出血而弗能虛也'에서 '陰陽相得'에 대해 張은 '非邪病之痺明矣'라 하여 陰陽이 邪氣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正常的인 陰陽

이 閉塞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楊, 馬, 景岳은 陰陽을 表裏의 邪氣로 보았고, 黃, 白話解, 語譯에서는 陰陽表裏營衛之氣와 外邪가 混合되어 內部에서 閉塞된 것의 意味로 보았다. 原文이 '陰陽俱有餘 雖多出血而弗能虛也'로 이어지는데 正氣가 有餘하다고 쓰이지는 않는 것이 常例이므로 '張'의 意見은 무리라고 思料된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는 '黃帝曰 婦人重身 毒之何如 岐伯曰 有故無損 亦無殞也 帝曰 願聞其故何謂也 岐伯曰 大積大聚 其可犯也 衰其大半而止 過者死'이라고 하여 妊産婦라도 體內에 病이 있다면 毒藥을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다³¹⁾고 한 것과 같이 體內의 邪氣가 盛할 때는 刺絡을 하여도 虛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奇邪가 經脈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말하기를 血脈에 있는 것이 奇邪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血絡을 刺鍼할 때 쓰러지는 것, 出血할 때 噴射하는 것, 血이 적고 검으며 濁한 것, 出血이 맑고 반쯤 汁으로 되는 것, 發鍼했을 때 붓는 것, 出血이 많던 적던 간에 面色이 창백하게 되는 것, 發鍼한 뒤에 안색은 變하지 않으나 답답해하는 것, 出血이 많았으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脈氣는 盛하고 血이 虛한 사람은 刺鍼하면 脫氣가 되면 쓰러지게 되며, 血과 氣가 모두 盛하고 陰氣가 많은 사람은 그 血이 매끄러우므로 刺鍼하면 射出하게 되며, 陽

31) 羌支錫: 婦人科에 關係된 內經文句에 대한 各家註의 比較研究, 圓大大學院, 익산, 1987, pp 45-46

氣가 蓄積되어 오랫동안 머물러 除去되지 않는 사람은 그 血이 검으며 濁하기 때문에 능히 射出할 수 없으며, 방금 물을 마셔 水液이 絡에 스며들었으나 미처 血과 和合하지 못하였으므로 血이 나올 때 汗이 별도로 나오며, 방금 물을 마시지 않았어도 몸 가운데 이미 水氣가 있는 지 오랜 뒤에 붓게 되며, 陰氣가 陽分에 蓄積되면 그 陰氣가 絡에 숨어 있으므로 이를 刺鍼할 때 血은 나오지 않으나 氣가 먼저 走行하기 때문에 붓게 되며, 陰氣와 陽氣가 방금 相得하였으나 미처 和合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이어서 이를 瀉하면 陰陽이 모두 脫盡되어 表裏가 서로 떨어져 얼굴의 血色이 없어져 창백하게 되며, 刺鍼할 때 出血이 많으나 色은 變하지 않고 煩惋이 발생하는 사람은 絡을 刺鍼하여 經을 虛하게 한 것이니 虛해진 經이 陰에 屬한 사람은 陰이 脫盡 되었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이며, 陰陽이 서로 만나서 습하여 막힌 사람은 안으로 經脈에 넘치고 밖으로 絡脈에 注入된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陰陽이 모두 有餘하기 때문에 비록 出血이 많더라도 虛해지지 않습니다.

第二章.血絡의 形態 및 刺法과 肉著

【原文】

黃帝曰 相(1)之는 奈何(1)

岐伯이 曰 血脈者는 盛堅橫以赤(1)하며 上下 無常處(2)하며 小者는 如鍼(3)하며 大者는 如筋(3)하니 則(4)而瀉之(4)야 萬全也(2)라 故로 無失數(2)矣(5)니 失數而反(6)하면 各如其度(3)니이다

黃帝曰 鍼入而肉著(3)者(7)는 何也(5)

岐伯이 曰 熱氣因于鍼 則鍼熱하고 熱則肉著

于鍼 故로 堅焉(4)이니이다

【校勘】

(1) 血脈者盛堅橫以赤: 『太素』에는 '血脈盛者 堅橫以赤'으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血脈盛堅 橫以赤'으로 되어 있다.

(2) 無常處: 『太素』에는 '無處'로 되어 있다.

(3) 大者如筋: 『太素』에는 '大者如箸'로, 『甲乙』에는 '大者如箸'로 되어 있다.

(4) 則: 『太素』에는 '卽'으로, 『甲乙』에는 '刺'로 되어 있다.

(5) 故無失數矣: 『太素』와 『甲乙』에는 '故無失數'로, 『太素』에는 '地無失數'로 되어 있다.

(6) 反: 『甲乙』에는 '返'으로 되어 있다.

(7) 鍼入而肉著者: 『太素』에는 '鍼入如肉著者'로, 『甲乙』에는 '鍼入肉著'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相: 省視也, 볼 상
- 〈2〉 數: 理也, 이치 수
- 〈3〉 箸: 附也, 붙을 착

【校註】

(1) 相之奈何: 楊은 "陰陽이 모두 盛할 때에 그 증후는 어떻습니까?"¹⁾고 하였고, 馬는 "이는 血絡의 관찰법을 말한 것이다. 相은 본다는 뜻이다."²⁾고 하였고, 張은 "이것은 氣血이 經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것을 거듭 밝힌 것이다. 相은 본다는 뜻이다."³⁾고 하였다.

(2) 血脈者 盛堅橫以赤 上下無常處 小者如鍼

1) 楊: 陰陽俱盛에 其候는 如何오

2) 馬: 此는 言視血絡之法也라 相은 視也라

3) 張: 此는 申明血氣之在經脈而外內出入也라 相은 視也라

大者如筋 則而瀉之萬全也 故無失數矣: 楊·景岳은 “그 血絡이 盛하거나 또한 단단하거나 橫으로 붉은 것과 혹 위아래로 작고 큰 것을 봐서 그것의 微甚에 따라서 이를 瀉한다. 瀉하는 데는 法度가 있기 때문에 萬全을 기하여야 刺絡하는 術數에 실수가 없을 것이다.”⁴⁾고 하였고, 馬는 “血絡은 반드시 盛한 것도 있고 堅한 것도 있고 橫으로 行하여 붉게 드러나며, 그 上行하고 下行함에 일정한 곳이 없기도 하나, 적은 것은 鍼 크기와 같고 큰 것은 筋크기만 하니, 반드시 그 鍼을 기울여 迎法으로 血絡을 瀉하여야 萬全을 기할 수 있다.”⁵⁾고 하였고, 張은 “盛하거나 단단하거나 橫으로 붉게 있는 것은 血이 脈 가운데 盛한 것이요, 위아래로 일정하지 않게 있는 것은 血氣가 流行하는 것이고, 鍼처럼 적은 것은 血이 孫絡에 머무르는 것이고, 筋처럼 큰 것은 經을 따라 血이 머무는 것이요, 數라는 것은 血脈이 出入하는 度數이다. 經絡에 留血이 있으면 이것을 瀉하기 때문에 經絡이 出入하는 度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經絡이 나오는 度數는 經에서 脈으로 脈에서 絡으로 絡에서 孫으로 이어진다.”⁶⁾고 하였다.

(3) 失數而反 各如其度: 楊·馬·景岳·黃은 “만약 術數를 잃어 그 法에 어긋나면 넘어지거나 射出되거나 탈진되거나 虛하거나 붓게 되는 등

4) 楊: 陰陽內經盛溢하면 必注於絡 故로 候堅橫盛絡하야 瀉之라야 萬全者也라 ○ 景岳: 視 其血絡盛 而且堅 及橫以 赤者와 或上或下或小或大者하야 皆當因其微甚 則而瀉之라 竊有則度 故로 可萬全無失於刺絡之術數矣라

5) 馬: 血絡者는 必盛必堅及橫以赤하며 其上下無有常處 하며 小如針而大如筋하니 必側其針하야 以迎而瀉之라야 可以萬全이라

6) 張: 盛堅橫以赤者는 血盛于脈中也요 上下無常處者는 血氣之流行也요 小者如針은 留血之在孫絡也요 大者如筋은 留血之在經隨也요 數者는 血脈出入之度數라 하고 留血之在經絡 則而瀉之 故로 無失其所出之度數矣라 所出之度는 從經而脈하고 脈而絡하고 絡而孫이라

의 證이 刺針하는 度數에 相應하여 나타난다.”⁷⁾고 하였고, 張은 “經絡이 나오는 數를 상실하여 반대로 되는 것은 또한 孫으로부터 絡으로 絡에서 脈으로 脈에서 經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각각 그 度數대로 外內를 出入하는 것이다. 楊元如가 말하기를 萬全이라는 것은 血氣의 流行이 內外로 서로 貫通하여 고리와 같이 끊어 없어서 그 실마리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⁸⁾고 하였다.

(4) 熱氣因于鍼 則鍼熱 熱則肉著于鍼 故堅焉: 楊은 “膚肌의 氣가 뜨겁기 때문에 鍼도 뜨거워져 針이 肉에 달라 붙으므로 轉鍼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래 留鍼하면 熱이 없어져 鍼이 차거워지면 자연히 침을 빼 수 있다.”⁹⁾고 하였고, 馬·景岳은 “肉著은 肉이 鍼에 달라 붙은 것이다. 鍼이 들어가 뜨거워지면 肉이 반드시 붙기 때문에 뻣뻣하니 針이 돌아가지 않아서 뺄 수가 없다.”¹⁰⁾고 하였고, 張은 “三陽의 氣는 皮膚의 表面을 주재하고 熱氣는 陽氣이니 熱氣가 鍼으로 이어지면 鍼이 뜨거우면 肉이 鍼에 달라 붙으니 침은곳의 肉이 단단해서 뺄 수 없는 것이다. 詳考하건대 이 篇은 血

7) 楊: 若失理而反取者는 各如前之度라 ○ 馬: 若失其術數하야 而與法相反 則凡或仆或射等證이 各如其度하야 以相應矣라 ○ 景岳: 若失其數 而反其法 則爲仆爲脫 爲虛爲腫等證이 各如刺度하야 以相應也라 ○ 黃: 失數而反 各如其度는 苟失其數 則反其道 而各如其度也라

8) 張: 如失其所出之數 而反者는 又從孫而絡하고 絡而脈하고 脈而經이니 各如其度 而外內出入者也라 楊元如 曰 萬全者는 謂血氣流行이 外內相貫하야 如環無端하야 莫知其紀라하니라

9) 楊: 膚肌氣熱 故로 令鍼熱 則肉著하야 轉之爲難이라 可動鍼은 久留熱去하야 鍼寒하면 自然相離也라

10) 馬: 此는 言針入而肉之所以着也라 蓋以針入于內하면 肉中熱氣가 溫之于針 則針熱하고 針熱則肉着于針 故로 不惟熱而又堅하야 不可拔也라 ○ 景岳: 肉著者는 吸著於鍼也라 鍼入而熱하면 肉必附之 故로 緊澀難轉而堅하야 不可拔也라

氣가 絡脈之間을 出入하는 것을 論하였으므로 血絡論이라 篇名하였다. 머물러 쌓인 곳이 모두 絡脈에 있으면 鍼을 기울여서 瀉하여야 萬全을 기하는 것인데, 만약 肉에 刺鍼하면 肉이 鍼에 달라 붙어 鍼은 자리가 단단해진다.”¹¹⁾고 하였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大者如筋’의 ‘筋’字는 『太素』에는 ‘拮’(젓을차)로 되어 있으며 『甲乙經』에는 ‘箸’(젓가락저, 나타날저)로 되어 있다. 『校釋』에 의하면 ‘筋’(젓가락저)의 誤字라고 하였다. 文脈上 ‘小者如鍼大者如筋’은 하나의 對句이므로, 작은 것이 鍼과 같다면 큰 것은 ‘筋’보다는 젓가락이 妥當하므로 詳考할 때 『校釋』의 意見이 옳다고 思料된다.

‘無失數矣’에서 ‘數’는 刺鍼의 原則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原文에는 ‘數矣’라 하였고 『太素』와 『甲乙經』에는 ‘矣’字가 빠져 있다. ‘故無失數矣’로 끝나는 文脈이 아니라 ‘故無失數矣 失數而反 各如其度’로 連結되는 文章이므로 ‘矣’字가 빠지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血脈者 盛堅橫以赤 上下無常處 小者如鍼 大者如筋 則而瀉之 萬全也 故 無失數矣’에서 楊·景岳은 ‘血絡의 微甚에 따라서 瀉하되 瀉함에 萬全을 기하여 刺絡의 術數를 잃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고, 馬는 ‘血絡은 鍼을 기울여 迎法으로 瀉함으로써 萬全을 기하여야 刺鍼하는 術數를 잃음이 없게 된다.’고 하여 ‘則而瀉之’를 ‘側而

瀉之’라 하였고, 張은 ‘盛堅橫以赤은 血이 脈가운데 盛한 것이고 上下無常處는 血氣의 流行이고 小者如鍼은 血이 孫絡에 있는 것이고 大者如筋은 血이 經에 있는 것이다. 數라는 것은 血脈이 出入하는 度數이다. 所出의 度는 經에서 脈으로 脈에서 絡으로 絡에서 孫으로 나오는 것이다.’고 하였다. ‘失數而反 各如其度’에서도 ‘數’에 대해 楊 등은 ‘術數’라고 하였고, 張은 ‘所出之數’라고 하여 위의 ‘所出之度’라고 하였다. ‘數’에 대해 楊 등은 ‘術數’라고 해석하여 血絡의 微甚을 살피는 방법이나, 迎法으로 瀉하라고 한 반면에 ‘張’은 ‘法度’, ‘度數’, ‘程度’의 뜻으로 보았는데 앞에서 원칙을 벗어난 刺絡의 副作用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張’의 견해가 해석상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黃帝曰 鍼入而肉著者 何也 岐伯曰 熱氣因于鍼 則鍼熱 熱則肉著于鍼 故堅焉’에서 대해 ‘楊’ 등은 滯鍼이 熱로 인하여 鍼과 肌肉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認識하였고 ‘張’은 側而瀉之하여야 하는데 取之肉하여 肉着했다고 보아 刺鍼法의 문제로 보았다. 臨床적으로 滯針은 심약하고 針에 대해 神經이 예민한 환자에게서 多見되는 바 氣滯에 의한 筋肉痙攣으로 肌肉의 纖維質이 鍼身에 영킨 것이다. 그러나 詳考하건데 일반적으로 먹는 肉質을 석쇠 위에서 구우면 肌肉과 석쇠가 熱에 의하여 달라 붙는 것처럼 微視의으로 分析하지 않고 直觀적으로 느껴 判斷해 ‘鍼熱’이라고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그르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張’의 見解가 進一步한 것이라고 思料된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血絡의 모양은 어떻게 觀察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血脈은 盛하기도 하고 단단

11) 張: 三陽之氣는 主于膚表하고 熱氣는 陽氣也니 熱氣因于針하면 則針熱하고 熱則肉著于針 故로 針下堅而不可拔也라 按此篇은 論血氣出入于絡脈之間 故로 名篇血絡論이라 有所留積이 皆因于絡하면 側而瀉之라야 萬全也이어늘 若取之肉하면 則肉著于針하야 而針下堅矣라

하기도하며 赤色으로 橫으로 있기도 하며 上下로 一定하게 있지 않기도 하며 작은 것은 針과 같기도 하고 큰 것은 筋과 같기도 하니 刺針의 법칙에 따라 이것을 瀉하여야 萬全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失數가 없도록 해야하니 만약 失數하여 刺法을 위반하면 失數한 度數대로 副作用이 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針이 들어가서 肉이 달라붙게 되는 것은 어찌서입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熱氣가 針으로 이리지면 針이 뜨거워지고 針이 뜨거워지면 肉이 針에 달라붙기 때문에 침자리가 단단해집니다.

【急問】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奇邪가 經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말하기를 血絡에 病邪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血絡을 刺鍼할 때 쓰러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出血할 때 噴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피가 나올 때 검으며 濁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흘러나오는 피가 묽어서 물이 반쯤 섞인 듯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拔鍼했을 때 皮膚가 붓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出血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顏色이 蒼白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拔鍼할 때 顏色이 變하지 않았으나 答답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出血이 많았으나 身體의 動搖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말하기를 脈氣가 盛하나 血이 虛할 경우에 血絡에 刺鍼하면 氣가 빠져나가고, 氣가 빠져나가면 쓰러집니다. 氣와 血이 모두 盛하나 陰氣가 많을 경우는 血의 運行이 빨라져 出血時에 血이 噴射 됩니다. 陽氣가 쌓여 오랫동안 外部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血이 검고 混濁하

로 噴射되지 않습니다. 방금 마신 水液이 絡脈에 스며들어 아직 血과 混合되지 않았으므로 出血時에 液汁이 섞여 나옵니다. 만약 방금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體內에 水液이 머물게 되며, 이것이 오래되면 水腫이 發生합니다. 陰氣가 陽分에 쌓이면 蓄積된 陰氣가 絡脈으로부터 나오는데 만약 여기에 刺鍼하면 피가 나오기도 전에 氣가 먼저 運行하므로 부어 오릅니다. 陰氣와 陽氣가 막 만나 아직 和合하지 않았을 때 이를 瀉함으로 인해 곧 陰陽이 모두 빠져나가고 表裏가 어긋나므로 顏色이 蒼白해집니다. 刺鍼할 때 顏色은 변하지 않으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絡脈을 過度하게 瀉하여 經脈이 虛해졌기 때문입니다. 虛한 經脈이 陰經에 속한 경우는 陰精이 빠져나가므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陰邪와 陽邪가 結合하여 痺症이 發生하면, 이는 邪氣가 안으로 經脈에서 넘치고 밖으로는 絡脈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陰邪와 陽邪가 모두 남아들므로 비록 出血量이 많더라도 虛해지지 않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觀察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血脈에 邪氣가 盛하면 단단하고 充滿하여 붉은색을 띄고 上下에 一定한 곳이 없이 발생하는데 작은 것은 鍼과 같고 큰 것은 筋과 같으니 이때는 이를 瀉하여야 安全합니다. 따라서 刺鍼原則을 어겨서는 안되며, 鍼道를 어기고 반대로 施行하면 각기 詳述한 바와 같은 情況이 發生하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鍼이 刺入하여 肌肉에 鍼이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을 경우는 어찌된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熱氣가 鍼으로 옮겨지면 鍼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 肌肉이 鍼에 달라붙으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IV. 結語

本 篇의 내용을 校勘하고 다시 各家註를 比較,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第一章 '血絡'은 皮膚表面에 邪氣가 入하여 閉塞不通하고 留而不去하여 아직 經에 入하지 않은 것을 指稱한다.
2. 血絡을 잘못 刺絡하여 생긴 副作用으로는 仆, 射, 腫, 煩惋, 顏色蒼白 및 血과 汁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
3. '面色蒼蒼者'는 岐伯의 대답에 의거하여 '面色蒼蒼然者'로 고치는 것이 妥當하다.
4. '血氣俱盛而陰氣多者 其血滑 刺之則射'에서 楊은 '陰氣多者'는 '陽氣多者'의 誤字라고 보았으나, 物理的으로 陰이 많으면 血管의 壓力이 상승하여 射出되므로 原文은 錯簡이 아니다.
5. '陰氣積于陽 其氣因于絡 故 刺之血未出而氣先行 故腫'에서 '因'은 『白話解』의 經由의 뜻보다는 『語譯』의 隱匿된다는 뜻이 妥當하다.
6. 第二章 '鍼入而肉著者'에서 肉著을 熱로 인하여 針身에 肌肉이 달라붙은 것으로 보았으나, 刺鍼部位의 筋肉緊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7. '血脈者 盛堅橫以赤 上下無常處 小者如鍼 大者如筋'에서 '大者如筋'의 '筋'字는 『太素』에는 '撻'로 되어 있으며 『甲乙經』에는 '箸'로 되어 있으나 『校釋』은 '筋'의 誤字라고 하였는데, 『校釋』의 意見이 타당하다.
8. '故 無失數矣 失數而反 各如其度'에서 '數'에 대해 楊 등은 '術數'라고 하였고 '張'은 '法度', '度數', '程度'의 뜻이라고 했는데 '張'의 見解가 解釋上 妥當하다.

參考文獻

1. 張馬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 一中社 서울 1986
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3. 皇甫謐 鍼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0
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5.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6. 程士德 內經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7. 王 冰 黃帝內經素問 一中社 서울 1993
8.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語釋 成輔社 서울 1980
9.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0. 張志聰 靈樞集註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11. 李政育 靈樞讀書 新文豐出版社 臺北 1977
1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서울 1989
13. 殷逸山 醫古文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4. 章 楠 靈樞節注類編 浙江科學技術出版社 浙江省 1986
15.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釋 一中社 서울 1992
16. 丹波元簡 靈樞識 一中社 서울 1991
17. 裴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서울 1995
18. 林鐘國 鍼灸治療學 集文堂 서울 1986
19. 洪元植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傳統文化研究會 서울 1994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21. 洪元植譯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7
22. 洪元植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서울 1994
23. 崔容泰外 鍼灸學 集文堂 서울 1991

辭典類

1. 謝 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7
2. 許 慎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서울 1990
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동의학사전 도서출판까지 서울 1990
4. 李相殷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4
5. 車柱環外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6. 李家源 漢韓理想大玉篇 理想社 서울 1997
7.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
8. 許世旭 새中韓辭典 徽文出版社 서울 1988
9. 梁柱東監修 현대국어대사전 一中堂 서울 1980
10. 박건호외 옛센스한영사전 민중서림 서울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Hyeol Rac Ron(血絡論) of the YoungChu(靈樞)

Lee Heui-Byeong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Woosuk University

(Directed by prof. Yuk Sang-Won, OMD.)

The HyeolRacRon(血絡論) of the YoungChu(靈樞) is one of the section associate with the study of bloodletting(depletion of blood) by acupuncture. The bloodletting therapy, one of the treatment of Oriental Medicine, has been advanced in civilization. By studying of this section, I could find some conculution as follows:

1. It is the superficial venules(血絡) that has been included blood stasis which has been interrupted by pathogenic factor(邪氣), and still could not enter into the meridian's line.
2. When bloodletting therapy, we should carefully study of patient's health condition, because doctor's missed acupuncture leads to very serious side effects.
3. External shape of HyeolRac(血絡) is like acu-middle or muscle, so its thickness and location were not fixed position, its color is redish, and its quality is hard.
4. It is reason of heating that fixation of acu-middle and muscle fiber.